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배우 구교환

Contents

일의 온도, 노동 속 사람을 읽다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51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간 내일
웹진 바로보기

36.5도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나의 일, 우리의 일



04

일의 온도
어떤 커피를 원하세요

08

일터의 열정지수
오후 네 시, 사무실은 조용해진다
(주)재담미디어의 주 35시간 실험

14

MOEL 인사이드
보호는 넓어지고, 책임은 무거워진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점

18

시시콜콜 상담소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장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내일의 체감온도

정책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변화



20

함께하는 MOEL
창업가의 페이스메이커, 상생 레이스를 달리다
(주)유디임팩트 김정현 대표

24

현장의 목소리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현장 중심 예방’ 강화

28

공감 1도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더, 제도 밖의 온기를 잇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상은 팀장

32

글로벌 통신
쉽이 제도가 될 때, 일은 더 오래 간다
세계의 법정 휴가가 보여주는 건강한 노동 설계

34

MOEL 뉴스

쉼표의 온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쉼터



38

내일 인터뷰
‘가치를 쉽게 단정하는 세상’에 전하고픈 이야기
배우 구교환

42

내일의 일
지구 밖 위험을 먼저 읽는 사람
우주 쓰레기 추적 및 궤적 감시자

44

두근두근 내일 여행
경계를 지우는 이국적인 풍경들
평택

50

셰프의 제철한끼
애호박 사워크림 소스를 곁들인
월과채를

52

내일 톤
· 비행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 소서팔사(더위를 식히는 여덟 가지 방법)

54

게시판



어떤 커피를 원하세요

20년 넘는 세월을 회사라는 조직에 속해 일해온 경험치가 있기도 하고, 2023년에 출간한 책에서 회사일과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겪은 번아웃에 대해 자세히 쓰기도 해서 ‘쉼과 휴식’을 주제로 하는 강의를 많이 맡게 되었다. 그날도 마침 그런 이유로 청주의 한 도서관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청주까지 강의 시간을 맞춰 가려면 일찍 퇴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만큼을 벌충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도 해야 한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퇴근 전까지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고, 청주로 가는 길에도 이런저런 메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도서관에 도착했을 즈음엔 물에 흠뻑 젖은 빨래마냥 몸도 마음도 녹진하게 축 처져 있었다. 도서관 앞에 크게 붙은 오늘 할 내 강의 포스터를 보며 생각했다. 아, 지금 번아웃이라는 강의 주제를 내가 할 주제가 되는가! 하지만 내심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다. 커피. 무겁고 축축한 녹진녹진한 몸을 녹진녹진 가볍고 생기 나게 되돌려주는 건 카페인이니까. 적어도 나에게는. 그리고 보니 온종일 커피 한 잔을 마시지 못했다. 보통은 주최 측에서 강연자용으로 물과 커피는 기본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나는 담당자이신 사서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마약 중독자가 손을 벌벌 떨면서 ‘코카인… 코카인…’을 읊조리는 것처럼, 속으로 ‘카페인… 카페인…’을 애타게 부르며 좀비처럼 강연자 대기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그랬는데. 커피가, 커피가 없었다. 맞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매우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커피를 따로 준비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소심한 성격과 딱히 뚜렷하지 않은 취향의 결과로써 나는 본디 ‘주는 대로 먹자’ 주의자이기 때문에 따로 부탁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카페인 없이 세 시간 가까이 강의를 할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혹시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물었을 때 혹시 커피를 부탁드려도 되는지 되물었다. 만약 도서관 안에 믹스커피도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면, 그래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면,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내가 사올 요량이었다. 하지만 그는 문제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대기실에서 나갔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5분 가까이 지날 때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10분 후면 강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니 이제 커피는 됐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전화를 하려던 참에, 마침내 한 손에 커피를 든 그가 나타났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고 물으면 웬지 추궁처럼 들릴 것 같아서 당장에라도 묻고 싶은 걸 꼭 참았는데 다행히 그가 곧바로 말해 주었다. 이 근처에 커피가 맛있기로 이름난 카페가 있는데, 어쩐지 (내가) 아주 맛있는 커피를 원할 것 같아서, 왕복 20분을 들여 그곳에서 커피를 사 온 것이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감동 받았고, 실제로 커피는 아주 맛있었다. 너무 맛있어서 오히려 이 커피를 사 오는 데 들였을 그의 20분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회사 직속 상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퇴근 시간도 훌쩍 넘기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내일 발표할 PPT를 만드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밤 10시가 넘어갈 즈음 회사 근처에서 저녁 약속을 마치고 짐을 가지러 사무실에 들른 상사가 내가 작업하는 걸 보게 되었다. 그때 내 작업물들을 보던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내일 네가 발표할 자리는 오직 메시지 전달만 잘하면 되는 자리인데, 그 누구도 PPT 디자인 심사 같은 건 하지도 않고 네가 무슨 색깔을 쓰고 무슨 폰트를 썼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왜 이런 데에 몇 시간씩 낭비하고 있냐고. 물론 디자인부터 가독성까지 PPT가 완벽해야 하는 자리도 있겠지. 그럴 때만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부터 파악해.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인지. 그리고 딱 그 커트 라인 넘을 정도로만 하는 거야. 무작정 모든 것에 완벽 하려다가는 오래 못 가.

‘쉽과 휴식’을 주제로 강의할 때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최대한 덜 지치면서 일하는지’라고. 우리가 일터에서 힘들고 지치는 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휴식의 크기도 커지는데, 수많은 현실적인 여건상 “필요한 만큼의 휴식”을 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일터에서 덜 소모되면서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걸 고민하는 편이 낫다. 이를테면 누군가 ‘나는 커피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맛이나 브랜드 같은 것과 상관없이 단지 카페인이라는 성분만 취하면 되는 건지, ‘커○빈’이나 ‘투○플레이스’

김훈비 에세이스트

여전히 백지 앞에서 낯을 많이 가린다.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그 위에 뭘 쓰는 것 같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아무튼, 술>, <전국축제지랑> 등을 썼다.



같은 커피 전문점의 커피 정도면 충분한 건지, 실력이 뛰어난 바리스타가 좋은 원두로 내린 하이엔드 커피가 필요한 건지, 따져볼 수 있다면 따져보는 게 좋다는 뜻이다. 내가 1시간이면 끝내고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일에 완벽을 기하느라 몇 배의 시간을 들여 나 자신을 소모시킨 것처럼, 나의 다정한 사서 선생님도 도서관 랑비실에 있는 믹스커피로 5분 만에 나에게 카페인을 건네준 뒤 어찌면 남은 35분을 다른 할 일에 쓰거나 조금 편히 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매사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커피를 준비하는 게 기쁨인 완벽주의자들도 있겠지만, 번아웃의 가장 좋은 친구는 ‘완벽주의’라는 걸 잊지 말자.

이 일을 겪으면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된 부분도 있다. 상대방에게 ‘그냥 아무 커피믹스면 된다’, ‘서류 보낼 때 특정 양식에 맞춰 필요 전혀 없다’, ‘화질이 안 좋아도 된다’처럼 구체적인 커트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괜한 노력을 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줄인 시간이 고작 몇십 분이라고 해도 부디 좀 쉴 수 있기를, 적어도 덜 소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후 네 시, 사무실은 조용해진다

「위라벨+4.5 프로젝트」 1호 기업 (주)재담미디어의 주 35시간 실험

balance

오후 네 시, 웹툰 스튜디오의 창가가 비어간다.
마감 직전이어도 그렇다. '세상의 모든 재미를 담다'라는 이름의 그릇 안에는,
(주)재담미디어가 콘텐츠와 함께 담아 온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

글 차유미 사진 오충근



마감의 밤을 건너낸 자리

(주)재담미디어는 웹툰·웹소설 IP를 기획·제작해 국내외 플랫폼에 유통하는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오리지널 IP 개발부터 플랫폼 운영, 글로벌 서비스까지 하나의 가치사슬을 갖췄다. 다만 콘텐츠 산업 특성상 연재 일정과 마감의 하루의 축이 되고,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시됐다. (주)재담미디어를 이끄는 황남용 대표는 이 오래된 전제를 다시 들여다봤다.

“좋은 콘텐츠는 오래 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창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 먼저였다.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곧 지속

가능한 경쟁력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그가 근무혁신을 복지가 아닌 투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시간을 줄이는 대신 방식을 바꾸는 법

전환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주 40시간에서 37.5시간, 다시 35시간으로 단계를 나눠 옮겨갔다. 실무를 설계한 서종휘 경영관리본부장은 그 순서에 이유가 있었다고 말한다.

“웹툰 제작은 작품별 일정과 마감의 워낙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시간만 줄이면 현장 부담이 커져요. 먼저 37.5시간으로 옮기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연장근무 원인부터 뜯어봤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확인이 섰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부서별 공백은 인력 충원만으로 메우지 않았다.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좋은 콘텐츠는 오래 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창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전 직무의 역할과 책임(R&R)을 재정립하고, 반복·중복 업무를 건너냈다. 그룹웨어로 근태·휴가·전자결재를 표준화했고, 회의 방식과 집중 근무시간도 손봤다. 콘텐츠 제작 부서에는 일률적 잣대 대신 작품 일정에 맞춘 자율 운영을 허용했다.

숫자는 방향을 뒷받침했다. 1인 평균 월 연장 근무시간은 2023년 49.44시간에서 2026년 28.14시간으로 약 43% 줄었다. 그사이 작품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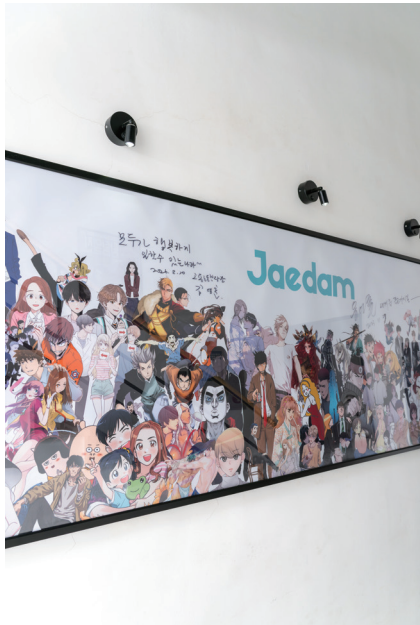
“회의는 꼭 필요한 안건만 남기고 반복 보고를 정돈하니,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창의성과 집중력이 자산인 업종에서는 이 변화가 결과의 밑도로 돌아옵니다.”

정책과 현장이 마주 앉은 자리

(주)재담미디어는 2026년 고용노동부 「워라밸 +4.5 프로젝트」의 1호 참여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3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체계를 본격 시행하면서 정책의 방향과 회사의 실험이 맞물렸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 우수기업(장관 표창), 가족친화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인증도 같은 궤도 위에 놓인다.

제도는 서로 이어져야 힘을 낸다.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부르는 호칭, 자율시차출퇴근제, 1시간 단위 연차가 빠대를 이루고, 짝수 달마다 열리는 Fun&Joy Day와 장기근속 휴가, 워크케이션, 임직원 심리상담, 리더십 교육이 그물처럼 엮인다. 어느 하나가 깜빡여도 다른 제도가 그 자리를 받친다.

노사협의회를 축으로 단계별로 다듬어 온 과정도 정착의 밑돌이 됐다. 서 본부장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엮은 제도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짚는다. 황 대표가 강조하는 지향도 이와



**적게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서 더 몰입하고 더 건강하게
일하는 회사 재담미디어가 그리는 지향은
여기서 시작된다**

맞닿아 있다. 재담미디어가 그리는 것은 '적게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서 더 몰입하고 더 건강하게 일하는 회사'다.

오후 네 시에 생긴 새로운 고민

퇴근 이후의 풍경도 달라졌다. 운동을 시작한 직원이 늘었고, 가족과 저녁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자주 오간다는 것이 서 본부장이 전하는 소리다. 재미있는 고민도 생겼다.

"이른 시간에 출근한 분들은 오후 네 시면 하루 일을 마칠 수 있는데,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주변에 많지 않다 보니 '같이 시간 보낼 친구가 없어 오히려 심심하다'고 농담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제도가 더 많은 기업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이시더군요."

회사가 만든 제도라는 감각을 넘어 구성원 스스로 더 나은 방식을 제안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 서 본부장이 꼽는 가장 큰 변화다. 황 대표의 시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재담미디어의 사례가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번져, 더 많은 기업이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의 다음 그림이다.

오후 네 시, 창가가 다시 조용해진다. 그릇에 담기는 것은 이제 콘텐츠만이 아니다. 만드는 사람의 저녁, 이튿날 아침, 그 시간이 돌아와 완성될 다음 작품까지가 나란히 담긴다. '세상의 모든 재미를 담다'라는 이름 위에, 오래 창작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가 함께 놓이고 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점 보호는 넓어지고, 책임은 무거워진다

2026년 하반기에는 체불임금 보호, 일·가정 양립, 고용지원, 산업안전과 관련한 변화가 잇따라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새로운 제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지원 수준, 사업주의 책임을 함께 조정할 것이 특징이다.

글 편집실 자료 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체불 보호와 퇴직 보장, 지원 범위와 처벌 모두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사업장 도산 이후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처벌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퇴직급여 체불 범죄 역시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진다.

돌봄과 휴가 제도는 더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사용 단위와 지원 범위가 세분화된다.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이 가능해진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와 관련 지원이 새로 마련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11월 27일부터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7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됐고, 12월 10일부터는 하루 4시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할 경우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선택권도 확대된다.

고용지원과 산업안전, 제도 운용 방식도 손질

고용지원 제도도 일정과 요건이 바뀐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 6개월로 연장, K-뉴딜 아카데미와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도 7월부터 순차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6월 1일부터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됐으며, 위험성평가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도 강화된다. 8월 1일부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범위가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산재은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지원 확대와 책임 강화가 함께 간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 하반기 한눈에 보는 정책 변화

분야	정책명	핵심 변화	시행일
체불·퇴직보장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대지급금 지급 범위 최종 3개월 → 최종 6개월 확대	2026.8.20.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10.8.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9.18.
퇴직보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가입 대상 30인 이하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2026.7.1.
근로시간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1일 4시간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게 없이 퇴근 가능	2026.12.10.
일·가정 양립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 가능	2026.8.2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관련 휴가·휴직 확대	2026.9.18.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확대	급여 지원 2일 → 4일 확대	2026.11.27.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업무분담 시 사업주 최대 60만 원 지원	2026.7.1.
고용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전국적 고용위기에도 지원 가능	2026.5.1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요건 통일	휴업·휴직 요건 정비, 일부 시간근무도 지원	2026.5.12.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상습 체불 사업주 지원 대상 제외	2026.6.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신청기한 12개월 → 1년 6개월	2026.7.1.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정량요건 산정기간 12개월 → 6개월	2026.5.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조업시작 기한 1년 6개월 → 6개월	2026.7.1.
직업훈련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청년 대상 대기업 주도 직무훈련 과정 신설	2026.7월~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재직자 5만 원, 7만5천 원 지원	2026.7.1.
산업안전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6.1.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2026.6.1.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안전수칙 위반·산재은폐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포상	2026년 하반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대상 확대	근로자대표 추천 시 위촉 의무화·대상 확대	2026.8.1.

대상자별 주요 지원 변화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요?

노동자·사업주·청년이 꼭 알아야 할 변화만 핵심 혜택과 시행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지원 활동·고용지원 신청 여건 개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전국적 고용위기에도 확대 지원 가능
- 유급 휴업·휴직 유형 통일, 일부 시간 근무도 지원 가능
- 시행 2026.5.12.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 최대 60만 원 지원
- 시행 2026.7.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조업시작 기한 1년 6개월 → 6개월
- 시행 2026.7.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연장

- 12개월 → 1년 6개월
- 시행 2026.7.1.



노동자 보호 확대·돌봄 지원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 확대

- 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 시행 2026.8.20.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 2일 → 4일
- 시행 2026.9.18. / 2026.11.27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1일 4시간 근로자 휴게 없이 퇴근 가능
- 시행 2026.12.1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30인 이하 →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 2026.7.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2026.9.18.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 가능
- 시행 2026.8.20.



청년 훈련 기회와 지원 함께 확대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청년 대상 직무훈련 과정 운영
- 시행 2026.7월~

주말 훈련수당 신설

- 청년 재직자 1일 7만5천 원 지원
- 2026.7.1.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장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자리 경쟁력과 직무 전환, 재취업 준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2026년에는
자부담 체계,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재직자 지원까지 여러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Q K-디지털 트레이닝이나
국가기간전략훈련 들으면,
이제 진짜 제 돈이 들어가요?**

A 2026년 이후 K-디지털 트레이닝(AI 캠퍼스 과정 제외),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은 계좌 유효기간(5년) 중 해당 특
화훈련 유형의 첫 수강(1회)에 훈련비
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일부는 훈련
생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훈련비가
300만 원 이하면 10%, 600만 원 이하
면 30만 원, 1,200만 원 이하면 40만
원, 1,800만 원 이하면 50만 원, 그 이상
이어도 6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Q 그럼 비싼 과정은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첫 수강에 적용되는 자기부담
금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다만 같은 유
형의 특화훈련을 두 번째로 수강할 때
는 첫 수강 우대가 아니라 일반 훈련비
지원율이 적용돼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이드
바로보기

**Q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내야 하나요?**

A 취업 취약계층은 자부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전
액 지원으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
득층, 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2유
형 중 특정 계층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속
4개월 이상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비수도권 훈
련생과 KDT AI 캠퍼스 과정 참여자도 면제 대상입니
다. 즉 이번 개편은 모두에게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참여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책임
을 부여하고 취약계층은 계속 두텁게 보호하는 구조
에 가깝습니다.

**Q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하반기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장인도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재직 중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됩
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재직자를 위한 훈련수
당 지원이 새로 도입됩니다. 평일 업무 때문에 훈련
이 어려운 재직자가 주말에 훈련 참여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취지입니다.

**Q 훈련 받는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얼마나
늘었나요?**

A 2026년 이후 시작하는 KDT(단기과정
포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산
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단기과
정 제외), 일반고 특화과정의 훈련장려
금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
다. 특히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는 실
업자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출석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훈련 과정은 지역구
분에 따라 특별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해
과정에 따라 체감 혜택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Q 지방에서 배우면 더 준다는 건
실제로 얼마 차이 나는 건가요?**

A 일부 훈련 과정은 지역에 따라 특별훈
련수당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특별훈
련수당의 월 최대 지급액은 수도권 10
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30만 원이며, KDT 내 AI 캠퍼스 과정은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인
구감소지역 60만 원입니다. 같은 훈련
을 받더라도 지역 여건이 더 불리한 곳
일수록 지원을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훈련비만 지원받는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의 생
활 부담과 지역 격차를 고려했습니다.

창업가의 페이스메이커, 상생 레이스를 달리다

[주]유디임팩트 김정현 대표

(주)유디임팩트는 예비 창업가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배움과 실행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창업 및 AI 교육을 제공하며, 누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누적 3만 명이 넘는 창업가를 육성하며 묵묵히 길을 달려온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장관 표창 수상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창업가들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 유디임팩트의 상생 트랙을 따라가 보았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결핍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액트프러너’의 향해

유디임팩트가 비즈니스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다. 사회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겪는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도구와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모순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진정성 있는 실행으로 이어졌다. 다문화 청년, 자립준비청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및 AI 교육을 진행했다. 유디임팩트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로 향한다. 지역 정착형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팀을 발굴하고 신규 일 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진행된 ‘2026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유디임팩트 혼자 만든 결과가

아니라 저희와 함께 땀 흘려온 창업가들, 파트너 기관, 그리고 모든 동료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유디임팩트는 ‘액트프러너(Actpreneur)’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미션을 품고 있습니다. 액트프러너는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사람을 넘어 자신의 삶과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바꾸어 나가는 주체입니다. 저희는 그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실행’에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시장에서 검증하도록 이끈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로 재정의하며 디지털 격차를 허물고 있다. 그 결과 기술에 소외되었던 소상공인이 시로 홍보 문구를 쓰고,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도구로 진로를 개척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기술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실행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이 유디임팩트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로 일구는 ‘99%의 자생력’

유디임팩트는 창업교육으로 시작해 ESG 실행, AI 역량 접목, 임팩트 측정까지 연결하는 독보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사업 바깥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에 내재화하는 것이 유디임팩트의 방식이다. 이러한 철학은 취약계층과 지역을 대하는 원칙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들을 결핍의 대상이 아닌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해결의 주체’로 존중한다. 다문화 청년의 문화적 경험을 강점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여정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로 전환하는 힘은 바로 이 현장 존중 문화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정답을 주입하는 대신 지역 고유의 자원과 숨은 이야기를 청년의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한다. 이 든든한 신뢰 덕분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정착형 창업 프로그램 역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국내를 넘어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활동 영역을 세계로 넓혀가는 중이다. 현지 맞춤형 모델을 통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창업가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우리는 ‘배움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되, 기업의 CSR이나 지방정부 스폰서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무상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의 지향점은 상위 1%의 특출난 스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99%의 평범한 창업가들이 시장에서 ‘덜 망하게’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은 수많은 성장 사례를 낳았다. 대표적인 주인공은 친환경 가구 기업 ‘페이퍼팝’이다. 상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던 창업자는 유디임팩트와 함께 타깃 설정부터 물류비 절감까지 경영 전반 체질을 개선했고, 현재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유디임팩트의 상생 생태계는 다채로운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사회공헌 사업이자 파트너십으로 함께하는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가 있다. 청년 이탈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국 30개 거점 대학과 손잡고 매년 1,500명의 지역정착형 창업 인재를 키워내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유일의 창업 데이터 랩, 그리고 최초의 도전

유디임팩트는 교육 수치를 넘어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와 일자리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창업가가 성장 단계별로 마주하는 공간, 자본, 기술 인재, 임팩트 측정 등의 퍼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도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11년간 창업 교육을 진행하며 쌓인 아카이브와 노하우를 체계화하기 위해 데이터 랩을 신설한 것이다. “사후 통계가 아니라, 교육 과정 중에 일어나는 행동, 성취도, 코칭 일지 같은 ‘진행형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리포트는 정부 정책 부서에 제공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 기획의 기반이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아시아 전체에서 이런 실시간 창업 데이터를 동시에 갖는 곳은 우리가 유일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창업 생태계의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IPO)에 도전한다. 이 도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전반에 ‘상장도 가능하다’는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주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실행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이 유디임팩트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현장 중심 예방' 강화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11.8% 감소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안착된 성과로 보기보다 현장 대응을 더 정교하게 다져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긴급 점검회의, 불시 현장점검, 안전문화 확산 행사, 소규모 사업장 순찰체계 운영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며 산업안전정책의 무게중심을 '현장 실행'에 두고 있다.

글 편집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2026. 7. 8. 안전일터 불시 점검



2026. 7. 8. 안전일터 불시 점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 앞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으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11.8% 감소, 현장 중심의 과제 아직 남아

고용노동부가 7월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 287명보다 34명, 11.8% 줄었다. 사고 건수도 278건에서 232건으로 46건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05명으로 33명 줄었고, 기타업종은 56명으로 26명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92명으로 25명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 흐름이 두드러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었고, 특히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67명으로 21명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5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물체에

맞음, 끼임, 질식·중독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화재·폭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의 감소 배경으로 고위험 사업장 점검 확대,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기관 협업, 취약 사업장 대상 기술·재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조업에는 보다 직접적인 대응 예고

고용노동부는 7월 3일 동일 유형 산재사고가 반복 발생한 주요 제조업체 15곳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끼임 위험부 방호조치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요구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했다. 참석 기업들은 안전투자 확대와 야간순찰 강화, 작업중지권 보장, AI 기반 사고예측 시스템과 드론 활용 계획 등을 제시했다.



2026. 7. 3. 제조업체 동일 유형 반복 사고 근절 점검회의



2026. 7. 3. 제조업체 동일 유형 반복 사고 근절 점검회의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로서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위해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올여름은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 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반복재해를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문제로 다루겠다는 정부 기조를 분명히 한 계기로 풀이된다.

안전문화 확산과 기술 기반 예방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7월 6일 킨텍스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5일간 AI 안전보건박람

회, 세미나,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진행했다. 올해 슬로건은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다. 박람회에는 300개 업체, 1,050부스 규모로 AI 스마트 안전기술과 3대 위험유형 예방 장비가 소개됐고, 총 40개의 세미나와 18건의 우수사례 발표가 마련됐다. 김 장관은 기념식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는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아침에 출근한 모습 그대로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책임과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재해 근절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그 길에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안전을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무로 확장해 설명한 발언으로 읽힌다.

반복되는 사고, 예방의 열쇠는 현장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관과 지방관서장,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불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부품 가공기계 방호도어 개방 시 인터록 미작동, 손상된 섬유로프 사용, 고열작업장 온습도계 미설치, 휴게시설 관리 미흡 등이 확인돼 즉시 개선 지시가 내려졌다. 김 장관은 출정식에서 “안전은 회의장의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은 즉시 개선한다는 각오로 점검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반복 재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도 강화된다. 7월 9일 열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된 1,000명 규모의 순찰제도가 소개됐다. 퇴직자와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작은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며, 연간 약 28만 회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을 전담하는 지킴이와 안전공단이 드론과 시를 활용해 위험 현장을 포착하고 즉시 개선한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안전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현장에 공공의 감시와 지원을 촘촘히 연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행·사법 조치, 화재 반복 발생 사업장과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 점검, 밀폐공간 질식사 예방 감독, 제조업 집중 점검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줄어든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같은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일이라며, 점검·감독·현장지원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 7. 6.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 행사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더, 제도 밖의 온기를 잇다

2025년 고용어워즈 우수상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상은 팀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고용센터) 문이 열리면 먼저 들어오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사정이다. 북향민, 노숙자, 오래 일터에서 밀려나 있던 구직자까지 각기 다른 하루를 안고 찾아온 이들 앞에서 이상은 팀장은 늘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묻는다. 2025년 고용어워즈 우수상을 받은 그의 성과도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의 빈틈을 메우려는 집요한 손길에서 시작됐다.

글 차유미 사진 김동환

사각지대를 먼저 알아본 현장의 감각

이상은 팀장이 노동약자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체감한 시기는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팀장을 맡고 있던 때였다. 양천구의 북향민,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과 쉼터의 노숙자들은 고용센터를 자주 찾았지만, 이들을 끝까지 받쳐 줄 촘촘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서류는 접수돼도 마음까지 닿는 서비스는 드물었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일수록 제도 앞에서 더 쉽게 작아졌다. 말투와 억양 때문에 시선을 의식하는 이도 있었고, 오랜 단절 탓에 구직 절차 자체를 낯설어하는 이도 있었다. 이상은 팀장은 그 시간을 떠올리며 “이분들도 고용센터의 고객인데, 현실은 밀착지원할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마주한 그 공백은 이후 취업지원 업무를 바라

보는 기준이 됐다. 사람마다 살아온 사연은 다르더라도, 그 사정을 끝까지 살피는 일만큼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북향민과 노숙자 곁에 더 가까이 선 지원

이상은 팀장이 집중한 것은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니었다. 북향민에게는 지원금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노숙자에게는 다시 일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한층 세심한 연결이 필요했다. 이상은 팀장은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북향민을 포함하는 데 힘을 보태고,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상담·진로지도·채용행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냈다. 면접장 앞 카페에서 인사법과 답변 요령을 함께 정리하는 동행면접, 취업 뒤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자녀양육이나



생활 적응 문제까지 이어지는 연계 지원은 그 밀도를 보여 주는 장면들이다. 누군가에게는 면접장에 혼자 들어가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상은 팀장은 서류 한 장보다 사람의 떨리는 마음을 먼저 붙들었다.

실제 현장에는 그런 손길의 온도를 고스란히 전하는 사례가 남아 있다. 세 번의 동행면접 끝에 취업한 29세 북한민 여성은 아이를 키우며 새 일터에 첫발을 내디뎠다. 자신감이 낮고 낮은 환경 앞에서 자주 움츠러들던 그는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마다 서울서부고용센터의 동행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취업 뒤 안부를 묻는 전화 끝에 건넨 “함께 가줘서 고맙다”는 한마디는 짧았지만 깊었다. 일 자리를 연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걸을 지켜주는 지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 주는 말이었다. 이상은 팀장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민간 영역에서는 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한 밀착지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7개소 협의체로 넓어진 연결의 힘

이상은 팀장의 노력은 한 센터의 실천에 머무르지 않았다. 북한민 취업지원 사례와 협업 방식을 더 넓게 나누기 위해 남북하나재단 소속 취업상담사 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현장 경험을 꾸준히 공유하며 지역 단위 연결망을 키워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민 취업지원을 함께 고민하는 17개소 협의체가 구성됐고, 한 지역의 경험은 다른 지역의 길잡이가 됐다. 협의체 안에서는 구인처 정보를 나누고, 채용행사 일정을 공유하고, 실무협약에 함께 참여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촘촘히



쌓아 갔다. 한 기관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여러 기관이 함께 풀어 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상은 팀장은 이런 협업이야말로 노동약자 지원의 지속성을 키우는 힘이라고 했다. 북한민이든 노숙자든 한 사람의 삶은 취업 한 번으로 단번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는 과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 생활의 불안을 덜어 내는 과정이 차곡차곡 이어질 때 비로소 지원은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 협의체는 바로 그 시간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걸을 나누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현장 곳곳의 손길이 이어질수록 누군가의 하루는 덜 외로워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조금 더 단단해진다.

한 사람의 내일을 붙드는 고용행정의 힘

이상은 팀장은 “협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북한민에 대한 취업지원은 특히나 더 협업이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이 말에는 현장의 성과가 결코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담겨

제도의 빈틈을 먼저 살피고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노력은 결국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있다.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기업과 대화를 이어 가고, 구직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한 사람의 내일도 달라진다.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이어지는 지원은 결국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북한민의 첫 출근길에도, 노숙자의 다시 시작에도, 그런 손길은 오래 남는다. 좋은 고용행정정은 멀리서 빛나는 성과보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누군가의 내일을 붙들어 주는 힘으로 완성된다. 이상은 팀장이 걸어온 길은 그 단순하지만 귀한 사실을 다시 보여 준다. 제도의 온도는 결국 사람을 향해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

쉬이 제도가 될 때, 일은 더 오래 간다

세계의 법정 휴가가 보여주는 건강한 노동 설계

여름이 오면 달력 위 휴가 표시가 하나둘 늘어난다.
그 표시는 비어 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할 힘을 준비하는
시간의 표정에 가깝다. 휴가는 개인의 기분 전환을 넘어
건강과 생산성, 일·가정 양립을 떠받치는 사회의 설계다.
그래서 각국의 법정 휴가 제도를 나란히 놓아 보면,
선진 노동정책이 무엇을 먼저 지키려 하는지도 또렷해진다.
글 편집실 자료 EU 근로시간지침 외

유럽이 세운 촘촘한 기준

유럽연합은 근로시간지침으로 모든 회원국 노
동자에게 최소 4주의 유급 연차를 보장한다.
이 기준 위에서 오스트리아는 주 5일 근무자에
게 25일, 같은 사용자 아래 26년째부터 30일
을 준다. 독일은 법정 최소가 20일이지만, 실
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넉넉하다. 연방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부분 산업의 전
일제 노동자가 최소 28일, 일부 부문은 평균
30일의 휴가를 받았다. 프랑스는 실제 근로 1
개월당 2.5일씩 쌓여 1년이면 5주가 되고, 영국
은 주 5일 근무자 기준 연 28일, 5.6주의 법정
유급휴가를 둔다. 유럽은 휴식을 개인의 재량
보다 사회가 보장할 최소선으로 다뤄 왔다.

이 대목에서 휴가는 단순한 후생이 아니라 노
동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장치로 읽힌다.
더 넓게 보면 각국의 연차 제도는 노동자의 회
복권을 어디까지 공적 책임으로 볼 것인지 문
는 기준이기도 하다. 연차 사용이 개인의 눈치
가 아니라 제도의 권리가 되는 순간, 일터의 문
화도 함께 달라진다. 휴가를 쓰는 일이 설명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가 되는 사회일수록 노동
의 밀도도 더 건강해진다.

나라마다 다른 숫자, 닮은 방향

호주는 정규·시간제 노동자에게 4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일부 교대근무자는 1주를 더
받는다. 뉴질랜드는 12개월 계속근로 뒤 4주
를 준다. 캐나다는 연방 규율 사업장 기준으로
1년 2주, 5년 3주, 10년 4주로 넓어진다. 일본
은 6개월 계속근로와 80% 이상 출근을 채우
면 10일이 발생하고 근속에 따라 최대 20일까
지 늘어난다. 싱가포르의 3개월 이상 근무 시
권리가 생기며 첫째 최소 7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한국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
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
대 25일까지 보장한다. 브라질은 12개월 근무
뒤 원칙적으로 연 3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숫
자는 달라도, 국가가 쉬는 시간의 하한선을 직
접 긋는다는 점은 닮아 있다. 유급휴가가 길수
록 좋은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 회복 시간을 법으로 확보한다는 원칙은 분
명하다. 그 원칙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직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키운다. 장기적으
로 보면 휴가 제도는 인력 유지와 삶의 안정성
에도 직접 닿아 있다. 제도가 촘촘할수록 노동
자는 미래를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꾸릴 수 있다. 이 점에서 연차 제도는 경제정책이자 생활정책
이다. 잘 설계된 휴가는 결국 일과 삶의 균형을 제도의 언어로
번역한 결과다. 쉬는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곧 사회의
품질을 말해 준다.

잘 쉬는 사회가 결국 오래 일한다

어떤 나라는 긴 휴가를 넉넉하게 보장하고, 어떤 나라는 근속
에 따라 점진적으로 넓힌다. 또 어떤 나라는 법정 최소 위에 단
체협약이 더 두터운 심을 쌓는다. 중요한 것은 방식보다 방향
이다. 국가가 휴식의 최소선을 직접 긋고, 그 선 아래로 노동이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고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심은 건강을
돌보고, 가족의 시간을 지키고, 다시 일터로 돌아올 집중의 결
을 되살린다.
달력에 적힌 연차 하루는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일할
힘을 고르게 하는 사회의 다정한 축적이다. 그래서 유급휴가
제도는 복지 목록의 한 줄이 아니라, 한 사회가 노동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기 어린
인프라다.



1

주 4일제 시범 운영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주4일제 시범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병원 노사와 의료현장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6개 병동에서 주 32시간·주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 이직률 감소와 소진 완화, 일·생활 균형 및 직무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워라벨+4.5 프로젝트'와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고용24에서 경력·자격·직업훈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 경력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프리랜서, 취업준비 청년은 흩어진 경력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증명서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력서 자동 작성과 기업의 경력 검증도 간편해진다. 정부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청년 경력증명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어 청년과 기업 의견을 수렴했으며, 2027년까지 제공 정보를 31종으로 확대해 청년의 취업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3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6월 고용동향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6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6만3천 명 증가했지만, 건설업 부진과 청년 고용 악화는 계속됐다. 정부는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첨단산업 인재 20만 명 이상 양성,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 이상 발굴, 구직·채용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도 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4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730원과 1만700원을 제시했으며,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으며, 개선 결과를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5

AI 시대 사회혁신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 노동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일자리 변화와 노동권, 사회보장 등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연내 질문 중심의 ‘AI 시대 녹색’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계약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AI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노동·사회 혁신 정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6

육아휴직 상반기
10만 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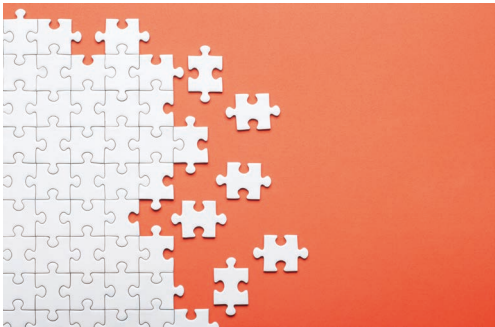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자가 약 2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 비중도 38.8%로 확대되며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을 시행해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7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월 소득 80만원 이상으로 바꾸고,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월 보수 신고체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와 노무제공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신고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8

청년 체감형 정책
강화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서울 관악구 청년카페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카페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약 15만8천 명의 청년을 지원했으며,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하반기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가치를 쉽게 단정하는 세상’에 전하고픈 이야기

배우 구교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 20년째 데뷔하지 못한 영화감독 황동만을 연기한 배우 구교환. 그는 이 배역을 두고 “제 일기장이 유출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열등감과 공허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하경현 경향신문 기자 사진 나무엑터스

모두가 그러할 진데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 복지 사업가,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청각 장애인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그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The world is full of suffering but it is also full of people overcoming it)”고 말했다. 이렇듯 살면서 불안과 고통은 살아있음의 증거로 여겨지고, 불안과 고통을 떨쳐내려는 행위 역시 생명 작동의 행위로 인식된다.

최근 우리가 TV 속 콘텐츠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가장 날 것의 느낌으로 접한 작품이 바로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이하 모자무싸)가 아닐까.

<동백꽃 필 무렵>과 <웰컴투 삼달리>로 우리 주변의 인간군상의 갖은 감정을 다룬 차영훈

감독과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으로 분명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박해영 작가가 만든 작품은 지금을 사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20년째 데뷔 못 한 남자, 황동만

그중 극 중에서 가장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도 그 무가치함과 함께 어깨를 걸고 가려 했던 이가 배우 구교환이 연기했던 황동만이었다. 영화 동아리 선후배로 구성된 ‘8인회’에서 20년 동안 데뷔의 영예를 안지 못한 인간, 그럼에도 가장 모임에서 신랄하게 남을 비판하는 인간.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인간미를 지닌 동만의 캐릭터에서 많은 노동자, 직장인들은 위안을 받았다.

“제 일기장이 유출된 기분이었어요.”





배우 구교환도 황동만이라는 배역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마치 자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내뱉는 듯한 동만의 모습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그는 동만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일기장에 비유했다.

“대본을 읽다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제 일기장이 유출된 기분이었습시다. 대본을 다 읽었을 땐 우리 모두의 일기장을 몰래 훑쳐본 기분이었죠. 동만이 그런 대사를 해요. ‘나는 리트머스지 같은 남자야. 상대가 산성이면 나도 산성! 상대가 알카리면 나도 알카리!’라는 대사가 무의식중에 제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라 무척 신기하고 놀랐습시다.”

지독하게 보편적인 이야기

구교환은 단순히 드라마를 데뷔 못 한 감독 동만의 성공기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갑갑한 상황을 나름의 악다구니로 풀어내는 방식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섬세한 시선.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듯 ‘아지트’에서 연기의 미묘한 기운들을 마치 탁구를 하듯 주고받는 분위기에 끌렸다. 모자무싸는 구교환에게 조금 더 보편적인 우리의 이야기였다.

“모자무싸’는 아마도 지독하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갖가지 감정을 최대한 극화한 인물이 있을 뿐. 들여다보면 거기엔 나의 모습도 있고, 내 친구의 모습도 있어요. 누구든 그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고요한 외침이 있는 작품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모자무싸는 ‘감정 활극’이라고 봅니다.”

열등감과 공허함, 잠깐 멈춰보기

매일 다양한 감정의 파고에 휩쓸리는 동만의 모습과 같이 연기자라는 직업을 택한 구교환의 일상도 다양한 감정이 일어난다. 이는 때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움트는 열등감과 공허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기도 하다. 구교환은 이러한 감정에 휩싸이는 직장인들에게 일단 잠깐 멈춰보는 것을 권한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를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거나 어떤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할 때 그런 감정이 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작고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도 언젠가의 저를 만드는 시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의 속도가 아니라 제 속도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면 열등감이나 공허함도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균형을 의식하지 않는 배우

구교환은 2008년 영화 <아이들>로 이름을 알린 후 출세작이 된 2021년 넷플릭스 <D.P.>에 이르기까지, 인물의 감정을 전형적인 요령으로 선보이지 않는 그만의 호흡으로 영역을 다져왔다. 그는 MBTI가 감성적이면서 공상이 많은 INFP로 계속 대중에게 노출됐는데, 딱히 스스로를 가누는 강박 같은 것은 없었다.

“균형을 찾고자 따로 의식하지 않아요. 자주 말하지만, 제가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다양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시간은 계속 저와 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 모든 동만들에게

모자무싸의 촬영장에서 앵글을 조금이라도 세트 바깥으로 넘겨보면 수많은 동만이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악다구니 속에 감추고 어떻게든 살아가는 동만 같은 이, 박경세(오정세) 같은 이가 있고 그들의 곁에는 이를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려는 변은아(고윤정) 같은 이, 고혜진(강말금) 같은 이가 있다. 구교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불안을 딛고 ‘진정한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한창인 <월간 내일>의 독자 그리고 이 시대 모든 동만들에게 극 중 동만의 대사로 메시지를 보냈다.

“동만이 그런 말을 해요. ‘내 무가치함의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릴 거야. 나의 빛나는 스토리를 기대하라’라고요. 좋은 의미든 아니든 많은 것들이 너무 빠르게 무가치해지거나 사라지고는 하는데요. 이 반복 속에서 얻은 생각은 무엇이 가치 있고 아닌지를 너무 쉽게 단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 가치 있게 변신해서 올 때도 있고, 반대로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거든요.”

구교환이 ‘무가치함’ 아니 ‘무가치함과 가치를 쉽게 단정하는 세상’에 전하고픈 이야기는 조금 더 이 상황을 분명하게 바라보라는 메시지였다. 싸우고 버티는 일상보다는 배우고 깨닫는, 바라보면서 생각해내는 일상이 조금 더 가치 있다. 이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구교환이라는 배우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쉽게 버려지는 시대에 배우 구교환은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본다
싸우기보다 바라보는 쪽을,
버티기보다 깨닫는 쪽을**



밤하늘은 고요해 보이지만, 지구 궤도는 절대 한적하지 않다. 수명이 다한 위성과 로켓 잔해, 잘게 부서진 파편들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다. 우주 쓰레기 추적 및 궤적 감시자는 그 복잡한 흐름을 읽어 내며, 충돌 위험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사람이다.

글 편집실 자료 ESA,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청

지구 밖 위험을 먼저 읽는 사람

우주 쓰레기 추적 및 궤적 감시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궤도를 지키는 눈

이 직업의 핵심은 우주 물체를 발견하고, 목록으로 관리하고, 앞으로의 경로를 예측하는 일이다. 우주 감시·추적 시스템은 우주에 떠 있는 잔해(고장 난 위성 조각 등)를 찾아내고, 목록으로 정리한 뒤, 궤도를 계산해서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위성 충돌 경보, 파편 발생 확인, 재진입 예측 같은 실질적인 우주 안전 업무로 이어진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낭만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늘 누군가의 판단과 경보가 걸려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 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궤도 환경이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우주국(ESA) 통계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정기적으로 관측·목록화 되는 우주 물체는 약 4만 5,780 개다. 하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 통계 모델로 추산한 1cm 이상 10cm 미만 조각은 약 120만 개, 1mm 이상 1cm 미만 조각은 약 1억 4,000만 개에 이른다. ESA는 10cm 크기 물체와 부딪히면 일반적인 위성이 완벽히 파괴되고, 1cm 크기 조각도 우주선을 무력화 하거나 국제우주정거장의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밝힌다. 목록에 잡히지 않는 이 사각지대의 파편들 이야말로, 이들이 가장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이다.

하나의 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눈으로

현장에서는 단일 장비로만 하늘을 읽지 않는다. 레이더, 광학망원경, 레이저 거리측정 장비, RF와 GPS 데이터가 함께 쓰인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궤도결정, 정밀 궤도결정, 미래 경로 예측까지 수행하는 기술을 소개한 바 있다. 또 중·고궤도 물체를 감시하는 광학감시시스템 '브라헤'를 통해 국내 관측 역량도 넓혀가고 있다. 망원경으로 우주를 들여다보는 작업인 동시에, 관측값을 경보 정보로 바꾸는 치밀한 분석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직업에는 물리학과 수학, 특히 궤도역학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며, 센서 데이터를 읽는 분석력과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 반복 계산을 견디는 꼼꼼함이 함께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부터 시작할까

충분히 가능한 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브라헤'를 운영하며 관련 실무 인력을 키워 왔고, 우주항공청도 국가위성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항공청이 카이스트를 우주항공 임무센터 1호로 지정하며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 인력 양성을 공식 임무로 맡기기도 했다. 물리학·천문우주학·항공우주공학에서 궤도역학의

기초를 다진 뒤, 대학원이나 연구기관 인턴십에서 실제 관측 데이터를 다뤄보는 경험도 다음 관문이 되고, 이후 한국천문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주항공청 등의 연구직·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다. 화려한 발견보다 고요한 점검이 더 많은 일이지만, 그 고요함 덕분에 궤도 위의 수많은 것들이 오늘도 무사히 제자리를 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이들은, 우주 시대의 안전을 지키는 조용한 관제사에 가깝다.





두근두근 내일여행

섬표의 운기

경계를 지우는 이국적인 풍경들

평택



낮선 나라로 떠나야만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택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익숙한 도시의 표정 사이로 문득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듯한 장면이 고개를 든다.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정원과 캠핑장 사이에서, 그리고 항만과 로데오거리로 이어지는 풍경 속에서다. 평택은 멀리 가지 않아도 일상과 여행의 감각이 나란히 놓이는 도시다.

글 송송이 사진 오충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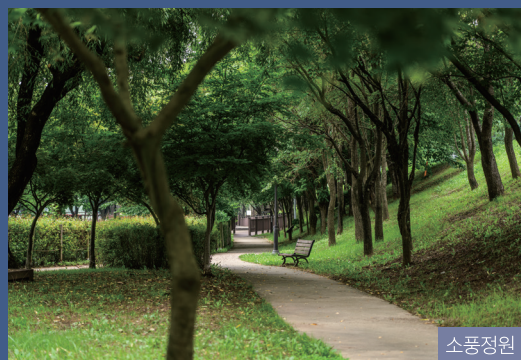
국제중앙시장 벽화거리

문을 열면 나오는 낯선 나라, 국제중앙시장

국제중앙시장의 매력은 평범함 뒤에 숨어 있다는 데 있다. 겉모습만 보면 어느 재래시장의 가게와 다를 바 없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외국의 작은 상점에 들어선 듯한 공기가 훅 끼쳐온다. 1958년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부대 앞으로 상인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이 시장은, 오산 공군기지 정문 맞은편의 신장소 핑몰 거리와 중앙시장을 아우르며 '경기도의 이태원'이라 불릴 만큼 독특한 정체성을 쌓아왔다. 멕시코, 브라질, 태국, 일본 음식점이 나란히 늘어진 골목과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재료로 끓여낸 부대찌개, 주말이면 열리는 나이트마켓까지, 다양한 언어와 냄새가 뒤섞이며 시장 전체를 하나의 여행지처럼 만든다. 평범해 보이던 간판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펼쳐지는 이 낙차야말로 이 시장만의 진짜 매력이다. 시장 한쪽에는 송탄역에서 미군부대 안까지 물자를 실어 나르던 옛 철길이 약 300m 이어지는데, 기차가 다니지 않는 지금은 골목의 보행로이자 벽화 갤러리로 남았다. 담장을 따라 그려진 그림들은 즉흥적인 낙서가 아니라 '함께 걷자, 철길 로드'라는 주제로 인근 대학생들이 '열차'와 '글로벌'을 콘셉트로 삼아 완성한 작품들로, 옛 수송로의 흔적 위에 세계 각지의 이미지를 겹쳐놓아 걷는 내내 낯선 나라를 통과하는 듯한 착시를 안긴다.

도심 한가운데의 쉼터, 소풍정원과 캠핑장

소풍정원과 캠핑장은 국제중앙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한 번의 발걸음으로 두 가지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고덕면 궁리, 진위천변의 방치된 하천 부지에 2013년 조성된 소풍정원은 '미소바람이 머무는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지향한다. 2018년에는 이화의 정



소풍정원



소풍정원

시장의 문 하나를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도 정원과 캠핑장 사이를 걷는 오후에도 평택은 슬며시 다른 나라의 공기를 건넌다

원, 무지개 정원, 빛의 정원, 지지배배 정원이라는 네 개의 테마 섬을 새로 조성해 색다른 경관을 더했고, 수변데크를 따라 솟대와 바람개비가 늘어진 산책로는 밤이면 경관조명이 켜지며 낮과는 또 다른 야경을 만든다. 정원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캠핑장에는 물놀이터와 모래놀이터, 편백힐링센터가 자리해 있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텐트를 치고 쉬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평일 낮에는 산책 나온 인근 주민들이, 주말이면 텐트를 펴고 하루를 묵어가는 가족들이 같은 공간을 나눠 쓰며 도시와 휴가지의 경계를 지운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고, 그 낯설이 일상과 여행 사이의 벽을 슬며시 허문다.

한 화면 안의 두 세계, 평택항과 마린센터

평택항은 전혀 다른 결의 얼굴을 하나 더 보여준다. 동북아 물류의 거점답게 항만은 늘 분주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옮기면 바다 건너로 조용한 농촌 풍경이 함께 눈에 들어온다. 천혜의 입지와 광활한 배후지를 갖춘 이곳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방정부, 민간의 참여가 겹치며 생산과 유통, 상업, 인적 교류 기능을 두루 갖춘 초대형 종합항만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이 대비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다. 노을이 서해대교 일대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 국적선과 자동차 선적 부두가 끝없이 이어진 산업항의 모습이 한눈에 잡히고, 그 너머로는 잔잔한 들녘과 마을이 펼쳐진다. 한쪽에서는 크레인과 컨테이너가 심 없이 움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절 따라 빛깔이 바뀌는 논밭이 천천히 흘러간다. 마린센터 안에는 항만의 여건과 개발 계획,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함께 있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항만의 어제와 오늘을 한자리에서 훑어볼



평택항 마린센터



안정리 로데오거리

수 있다. 속도가 전혀 다른 두 장면이 하나의 시야 안에 나란히 놓인다는 것, 그것이 평택항만이 지닌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이 전망대에 서면 평택이라는 도시의 여러 겹 얼굴을 가장 또렷하게 마주하게 된다.

국경 없는 거리, 안정리 로데오거리

안정리 로데오거리는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과 맞닿아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에서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고, 거리의 표정도 함께 바뀌었다. '제2의 이태원'이라 불릴 만큼 상권이 커지면서 서양식 펍, 바비큐 전문점, 텍스멕스 식당이 줄지어 들어섰다. 낮에는 한산하고 여유로운 이국의 골목 같다가도, 해가 지면 네온사인이 켜지고 낯선 언어와 음악이 거리를 채운다. 최근에는 관광정보 키오스크가

지 설치돼 평택시민과 외국인 방문객 모두를 위한 거리로 자리를 넓혀가는 중이다.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는 안정리에 술인광장이 자리한다. 이곳은 동네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낯은 건물들을 헐지 않고 고쳐 만든 복합문화공간으로 2020년 10월 문을 열었다.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를 준 광장 바닥은 앉거나 누워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순수예술센터와 생활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창작작업소 등 10개 동에서는 시민과 미군, 예술가가 함께 어울리는 전시와 공연, 축제가 주말마다 펼쳐진다. 상권의 활기와 예술의 여백이 한 골목 안에서 나란히 숨 쉬는 셈이다. 거대한 기지 하나가 만들어낸 이 이질적인 풍경은 평택이 품은 이국적인 장면 가운데서도 가장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

국경을 넘지 않고도
마주치는 이국의 표정들
그 낯설과 익숙함이
나란히 걷는
이 도시에서는
하루하루가 조금씩
다른 나라를 지나는
여행이 된다





애호박 사워크림 소스를 곁들인

월과채롤



잘 볶은 애호박이 주인공이었던 궁중 속채, 월과채.
 찹쌀부꾸미를 한 장의 피처럼 펼쳐 그 안에 재료를 돌돌 말아내니,
 애호박은 익숙한 맛을 지키면서도 다른 재료의 풍미를 감싸안은 가장 아름다운 조연이 되었다.
 한입에 여름의 식감과 빛깔이 함께 담기는 롤이다.

글과 레시피 김희은 셰프 일러스트 냉무

스물한 살, 요리학교에 입학해 2학년이 되면 자신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나는 망설임 없이 한식을 택했다. 가장 익숙한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 가장 깊은 세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오래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결이 드러났고, 평생을 공부해도 끝에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 무한한 깊이가 나를 이 길로 이끌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매력에 깊이 빠져들던 무렵, 오랜 시간 세종호텔에서 한식을 연구하고 이어오신 교수님께 궁중 속채를 배우게 되었다. 그때 처음 만난 요리가 바로 월과채였다. 수수한 재료 하나에도 섬세한 칼질과 정성이 깃들고, 먹는 이를 향한 배려가 한 접시에 고스란히 담기는 요리였다.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이 길을 선택하길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보면 나는 요리를 배

우는 동안 재료를 대하는 마음과 사람을 헤아리는 시선,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익혀가고 있었던 것 같다. 여름이면 시원한 냉국도 좋고, 매콤하고 자극적인 음식이 유난히 당길 때도 있다. 하지만 애호박이 가장 맛있어지는 이 계절이 오면, 나는 가장 먼저 그때의 월과채를 떠올린다. 이름만 보면 월과, 즉 애호박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시 풀어낸 요리에서는 오히



글과 레시피를 보낸 김희은 셰프는 미술영 1스타 레스토랑 '소울'을 이끄는 오너 셰프로, 일상적인 식재료와 장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섬세하게 풀어냈다.

려 가장 아름다운 조연이 되기를 바랐다. 제맛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재료의 풍미를 부드럽게 감싸안고, 한 접시의 균형을 완성하는 존재로 말이다. 원래의 월과채는 잘 볶아낸 애호박에 간장 양념으로 맛을 낸 소고기와 표고버섯, 지단, 찹쌀부꾸미를 함께 버무린 뒤 잣가루를 뿌려 마무리하는 궁중음식이지만, 나는 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 찹쌀부꾸미를 넉넉하게 부쳐 한 장의 피처럼 펼쳐고, 그 안에 애호박을 비롯해 저마다 다른 식감과 빛깔을 지닌 재료들을 차곡차곡 담아 돌돌 말아냈다. 익숙한 맛은 그대로 간직하되, 한입에 다양한 식감과 계절의 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롤 형태의 요리로 재해석한 것이다. 여기에 남은 애호박으로 사워크림과 함께 퓨레를 만들어 곁들이면, 입안에서 푸른 여름이 비로소 시작된다.

애호박 퓨레를 곁들인 월과채롤

월과채는 궁중의 여름 속채 요리로, 조선호박(현 애호박), 쇠고기, 표고버섯 등을 채 썰어 볶고 찹쌀부꾸미와 함께 무쳐 냅니다.

재료

쌀전병 습식 찹쌀가루 100g 습식 멥쌀가루 50g 흑임자 15g 소금·설탕 약간

부재료 빨간 파프리카 1개, 달걀 2개, 건표고버섯 5개, 애호박 1/4개, 당근 1/3개, 미나리, 꿀(1ts)

허브 크림볼 버터 30g 건식 빵가루 25g 레몬 1/2개, 애플민트 5장

갈비 소스 진간장 25g 설탕 8g 물엿 45g 배 20g 다진 양파 10g 다진 대파·다진 마늘·참기름·참깨·후추 약간

이렇게 만드어요!

- 1 **반죽·지단:** 찹쌀·멥쌀가루(2:1)에 소금 1.5g·설탕 7.5g·뜨거운 물(35~45g)을 넣고 익반죽한다. 팬에 넓게 펼쳐고 흑임자를 뿌려 지져낸 뒤 식힌다. 노른자는 소금 간을 해 얇게 지단을 붙여 채 썬다.
- 2 **손질·볶음:** 파프리카·애호박은 채 썰고 미나리는 다듬는다.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썰어 갈비 소스에 재운 뒤, 애호박 → 파프리카 → 버섯 순으로 불맛을 살려 볶는다.
- 3 **성형:** 전병에 꿀을 바르고 파프리카, 당근, 황지단, 애호박, 생미나리, 표고버섯을 올려 말아준 뒤 한 입 크기로 썬다.
- 4 **소스류:** 141°C 브라운 버터에 빵가루, 레몬 제스트, 민트 잎을 섞어 허브 크림볼을 만든다. 볶은 애호박(50g), 사워크림(10g) 소금을 갈아 체에 내려 퓨레를 만든다.
- 5 **완성:** 핑거푸드(쌀종이+크림볼+롤) 또는 접시 차림(퓨레+허브) 스타일로 잣가루를 곁들여 올려 완성한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글. 그림 할리오니(@HALIONI)



소서팔사 (더위를 식히는 여덟 가지 방법)



독자 후기

「월간 내일」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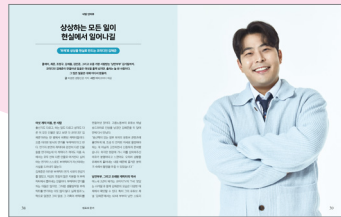
매호 「월간 내일」을 읽고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내일 인터뷰]



다양한 부캐릭터들의 생생한 디테일이 오랜 무명 시절과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속도보다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며 동료 간의 존중을 말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느낌을 느꼈고, 김해준 씨의 말처럼 모두의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건강한 일터가 많아지길 응원합니다.

- 고상한 독자

[글로벌 통신]



폭염 앞에 멈출 권리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산재 위험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외국의 법과 제도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궁금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 임성희 독자

[내일의 일]



‘식물공장 재배 환경 전문가’라는 직업은 다소 생소했지만, 빛도 바람도 없는 지하에서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후변화 시대에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날씨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키워내는 실내 재배 방식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 김호철 독자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 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월간 내일」과 함께 하는 QUIZ

「월간 내일」 2026년 8월호를 읽고 독자 퀴즈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신설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최소 몇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 ① 2주 또는 4주 단위
- ② 1개월 단위
- ③ 1주 또는 2주 단위
- ④ 일 단위

HINT. 자녀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일 혹은 14일 정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14~17p 참고)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주도하여 직무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2026년 하반기 신설 프로그램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 ① 고용위기 아카데미
- ② K-뉴딜 아카데미
- ③ 청년 일자리 매칭
- ④ K-디지털 트레이닝

HINT. 2026년 7월부터 신설되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입니다.(14~17p 참고)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6년 8월 20일(목)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7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채○은(2532)	홍○선(6498)	장○현(0632)
최○한(7233)	황○희(9657)	김○태(3881)
정○미(1381)	방○사(0725)	안○현(9115)